

<역사학입문>

서양의 역사서술

“History as a Mirror” / “Metahistory”

- 헤로도토스의 <historiai>
- 헤겔의 관념론적 역사관
- 맑스의 유물론적 역사관
- 20세기 역사학, 아날학파의 전체사, 문제사
- 신문화사(New cultural history)

History as a Mirror

* 정관의 치(貞觀之治, 627-649)

: 중국 최고의 황제로 꼽히는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 23년간의 통치기

* 세 개의 거울 (三鑑)

“동으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고대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과 왕조 교체의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기의 득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이 세 종류의 거울을 구비하여 자신이 어떤 허물을 범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오궁, <정관정요>, 2003, 63)

1.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의 참고

-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 1863-1952)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반복하는 형벌에 처해진다.”

2. 나/우리의 정체성(identity)를 형성하고 함양

“역사의 가치는 인간이 무엇을 해놓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데 있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성이 없으며 다만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즉, 인간의 자기 인식으로서의 역사. 콜링우드(Robin G. Collingwood, 1889-1943)

3. 역사적 사고와 통찰의 힘

- 엄격한 사료 비판과 '그것이 본래 존재했던 대로'(wie es eigentlich gewesen)의 기술,
: 즉 랑케식 객관주의
- “사회현실은 현재 안에 존재하며, 과거로 옮겨감에 따라 소멸한다. 과거는 사실 지금 있는 모습대로 이야기될 수 있을 뿐이지 과거의 모습대로 이야기될 수는 없다.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현재의 사회체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사회행위인 것이다.”(이매뉴얼 윌러스틴, *MWS I*, 26)
: 객관성이란, “전체 사회체제의 한 함수”이며 “이러한 사고의 틀 안에서의 성실성”인 것. 즉, 설명력과 실천성.

history : 歷史(역사) : 史(사)

- '史'

- 고대 중국, 종교적 목적으로 사람의 일을 하늘과 조상에 보고하기 위한 기록 또는 기록하는 사람. 하(夏)와 은(殷) 시대부터 '史'라는 관리. 특히 기록자 사관(史官)은 주(周)나라 이후부터 통치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천재지변까지 폭넓게 기록, 관청의 서적을 관리하는 직책도 함께 맡음.
- 과거의 사건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학문이라는 의미로 심화:
노(魯) 나라의 공자(公子, BC. 551-479), <춘추(春秋)> ,
한(漢) 나라의 사마천(司馬遷, BC. 145-85), <사기(史記)>

- 'hitoria'

- 서양 고대 그리스
-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Herodotus, BC. 484-430), <히스토리아(historiai)>
- 투키디데스(Thucydeides, ca. 5c, BC.) <히스토리아(historia)>

: 인도유럽어 'wid-tor-' 에서 'histor' 유래, '목격자', 진실을 묻고 찾는 자

-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역사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통합하고 있으며, 사건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설명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한다” (이상신, <역사학개론>, 12)

‘역사’

1. 과거 인간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
2. 역사가의 과거 사건의 탐구로서의 역사(지식, 지식체계)
3. 탐구 결과를 서술한 기록으로서의 역사

Metahistory

-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열망한다.”
앎의 네 단계: 감각단계, 기억 단계, 경험 단계, 형이상학의 단계.
즉, “사물의 첫 번째 원인(aitia)과 원리(arche)들에 관해” 아는 단계.
역사의 첫 번째 원인과 원리들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것이 메타히스토리.
- ‘역사철학(philosophy of history)’
 - 사변적 역사철학(speculative philosophy of history)
 - 비판적 또는 분석적 역사철학(critical or analytic philosophy of history)
 - 서술적 역사철학(historiography)
- : ‘메타’적 성찰: 역사의 힘이나 법칙, 목표 등을 묻는 분야, 역사 자체의 의미와 학문적 성격을 묻는 분야, 서술과 텍스트성을 묻는 분야 등의 철학적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의 인식론과 연구방법론, 역사가와 역사지식, 역사 소비자를 둘러싼 권력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성격.

서양의 고대 그리스 역사서술

- B.C 10세기 전후, 구전역사 탄생.

: 역사적 사실들이 신화적 전설과 뒤섞인 상태로 서사시의 형태로서 구전된 것.

- 그리스신화, 아홉 여신 muse 중에서 클리오clio, 이야기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여신. 후대 역사가들은 '역사의 여신'으로 상징화.

- BC. 7세기 경, 호메로스(Homeros)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구전된 영웅담을 문자로 기술한 서사시적 역사이야기들.

➤ “Mythos” - “Myth”

- BC. 5세기경 '역사의식'의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
- 헤로도토스,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한 <Historiai>

-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로서 역사

- 헤로도토스, “이 책은 할리카나소스 출신의 헤로도토스가, 인간이 행한 일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인과 이방인이 이룬 크고 놀라운 행위들이 그 영광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탐구(historia)한 바를 서술하였으며, 이에는 특히 양측이 전쟁을 벌이게 된 원인(aitia)이 포함되어 있다.”

- 투키디데스, “명백한 증거”에 기초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 강조.

- “시인들처럼 자신의 숨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여 이끌어낸 것도 아니며, 산문작가들처럼 사람의 마음을 끌고자 진실을 희생시키며 이끌어낸 것도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증거의 뒷받침 없이 쓰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대부분은 역사적 가치를 잃고 전설이 되고 만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점은 운문을 쓰느냐 산문을 쓰느냐 하는 차이점이 아니라 ... 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더 많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 개별적 사실fact 과, 보편적 진리

헤겔의 관념주의적 역사관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 독일의 고전적 관념론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 『정신현상학』(1807), 『법철학』(1821), 『미학강의』(1835)
- 『역사철학강의』(1837)
: “역사에 대한 사유적 고찰”



“세계사란 자유의식에 있어서의 진보의 과정이다.”

➤ 역사는 정신의 현상이고, 그 힘은 이성이며, 이는 현실과의 관계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자기 목적을 실현시켜 나가며 그 목적은 자유. 즉, 세계사는 이성과 자유(Freiheit)의 자기실현.

- 정신이 자유를 추구하며 전개시킨 바가 ‘이성적인 것’,
: 역사란 ‘이성의 역사’, “이성의奸計”
- 변증법적 전개(These-Antithese-Synthese)

- 오리엔트의 단계 -그리스의 단계-로마적 단계- 기독교적 게르만 단계
- 중국인, 인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서유럽 게르만민족

❖ 세계사의 단계와 자유

“세계사란 ... 정신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이자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발전’은 일련의 단계, 자유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일련의 규정은 사물의 개념, 다시 말해 여기서는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자유의 본성에서 생겨난다.”

“나는 일반적으로 자유와 앎을 구분하는 것에 관해 말하면서, 우선 동양인들은 단 한 사람만 자유롭다는 것을 알 뿐이고,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자유로우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유롭다는 것을 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세계사에서 하는 구분이 확정되며, 이 구분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사를 논의해나갈 것이다.”

“세계사는 동에서 서로 향한다. 유럽은 틀림없는 세계사의 끝이다. 아시아는 시작이다. ... 세계사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의지를 훈련시켜 보편성과 주체적인 자유로 이끈다.”

● 헤겔의 역사철학이 역사학에 미친 기여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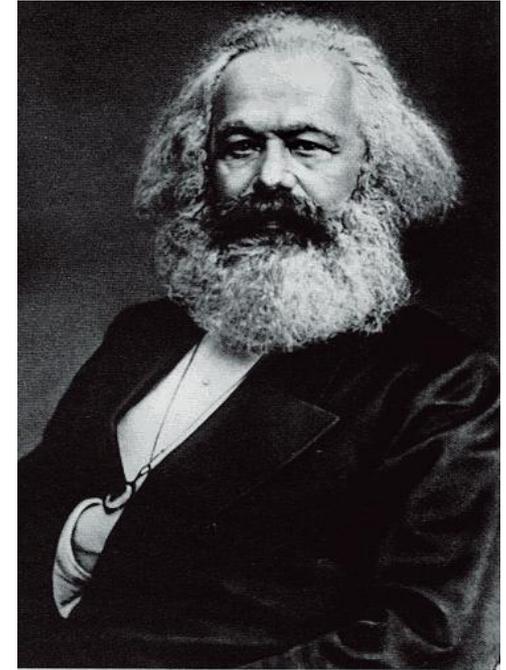
1. 세계사를 이성과 자유라는 두 개념을 응용해 변증법적으로 설명함.
2. 세계사의 진행을 자유의 진보 과정으로 봄으로써 목적론적으로 파악함.
 - 역사적 사건의 외면적 현상에 대한 파악을 넘어 내면을 파악하고,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틀을 기준으로 연속성 속에서 파악.
 - 역사 속의 의미 있는 사건과 현실을 필연성의 작용으로만 보고, 역사에서 우연을 배제.
3. 자유의 진보가 유럽에서, 특히 프러시아 군주체제에서 최종 실현되는 것으로 봄.
 - 세계사의 진행을 '성공적'인 현상들의 연속으로 구성함으로써 희생된, 실패한 바들 무시
4. 기독교적 역사관의 형식을 계승하되, '신앙'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함.
 - 헤겔의 관찰은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임. '세계정신', '이성의 간계' 등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구성.
 - 현실의 역사 그 자체 속에서, 물질적 구조와 인간 정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성
5. 역사 일반에 대한 이해와 세계사적 사고 형식을 세우는 데 기여.

맑스의 유물론적 역사관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 1842. <라인신문> 편집장
- <신성가족>, <독일이데올로기> <철학의 빈곤>
- 1848. <공산당선언>
- 1864. 런던, 최초의 국제공산조직 '국제노동자협회 (제1인터내셔널)' 창립 지원
- 1867. <자본>
- 1876. 국제노동자협회 해체

-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조 분석, 자본과 노동의 관계, 특히 비인간적인 모순과 소외 문제에 천착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칼 맑스)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해 마르크스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해 예수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영국 노동당 정치인, 토니 벤)

● 맑스의 유물론적 역사관

1. 역사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물질적 생산력'

- 하부구조(생산관계/생산양식, 물질 토대로서 경제구조)
- 상부구조(법적, 정치적, 정신적 구조)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과정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2. 역사의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생산양식의 대립 속에서 이루어짐.

3. '계급투쟁'이 역사 발전의 동력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장인과 직인, 한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항상 서로 대립하면서 때로는 숨겨진, 때로는 공공연한 싸움을 벌였다. 각각의 싸움은 그때마다 대대적인 사회의 혁명적 재편 또는 경쟁하는 계급들의 공동 파멸로 끝이 났다. ... 하지만 우리 시대 ... 전체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양대 적대 진영으로, 서로 직면하고 있는 양대 계급으로 점점 더 분열되어가고 있다." <공산당선언>

4. 공산주의(communism)/사회주의(socialism) 전망

5. 원시 공산적-고대 노예적-중세 봉건적-근대 자본주적 생산양식

❖ 참고) 맑스의 자본주의와 인간소외 비판

- 1844, '소외'의 문제를 다룬 <경제학-철학 수고> (파리수고) 발표
- 소외=인간성의 변질의 근원, 부르주아 계급만의 전유물로서 '소유권' 비판
- “인간답게 산다는 것”? 물질자연, 자기자신,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온전히 소통하며 영위
- 사적소유(자본집중)는 이러한 길을 방해하고 차단하여 인간성을 왜곡, 변질시킨다는 것.

1. 사유재산은 인간이 물질자연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고 차단한다.

“노동자가 그의 노동을 통하여 외적 세계, 즉 물질적인 자연을 자기화하면 할수록 그는 이 중적으로 삶의 수단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진다. 첫째, 물질적 외부세계가 점점 더 그의 노동 대상, 즉 그의 살아있는 노동의 수단이기를 중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둘째, 물질적 외부세계가 점점 더 그의 직접적인 생활수단, 즉 노동자의 육체적 생존수단이기를 중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맑스, 맑스/엔겔스 저작선집 I, 74쪽)

- 노동이 인간에게 자기긍정과 자기실현의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부정과 자기상실의 계기.

2. 사유재산은 인간이 자기자신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고 변질시킨다.

“소외는 생산의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생산 행위 그 자체에서도, 즉 생산활동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노동자는 그의 노동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며, 자유로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으로 그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그의 정신을 파멸시킨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 바깥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며, 노동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떠나있다고 느낀다. 그의 노동이 소외된 노동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육체적 또는 기타 강제가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노동이 마치 페스트처럼 기피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맑스, 맑스/엔겔스 저작선집 I, 75~76)

3. 사유재산제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변질시킨다.

“인간이 자기 노동의 생산물, 자기 삶의 활동, 자기의 유적 본성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사실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한 가지 결과는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맑스, 맑스/엔겔스 저작선집, 79-80)

- 사적소유에 기반한 “끊임 없는” 이윤 축적을 원리 자본주의 : 추상화와 동질화 : “인간의 자연적 본질과 대상의 본성(개성)의 힘(생명력)을 망각하는 것”

❖ 위 대목을 전태일의 표현으로 번역해보자.

“어지럽게 들려오는 쇠 금속 소리, 짜증섞인 미싱사들의 언성, 무엇이 현재의 실체인지를 분간 못하면서 그 속에서 나도 부지런히 그들과 같이 해나갔다. 무의미하게. 내가 아는 방법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는 무아지경이다.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순서대로, 지금 이 순간에 알아야 될 행동만이 질서정연하게 자동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실재의 나는 일의 방관자나 다름없다. 내 육신이 일을 하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의 영감과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몇 인지, 몇 푼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긋고 나면 나라시가 되고, 다 되면 또 재단기계를 잡고, 그은 금대로 짜르는 것이다. 누가 찼을까? 이렇게 생각이 갈 때에는 역시 내가 찼다.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렴풋이 생각이 확실해질 때는 퇴근시간이 다 될 때이다. 세면을 하고, 외출복으로 바꿔 입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오면, 밥상이 기다리고 있다. 밥을 먹고 몇 마디 지껄이다가 드러누우면 그걸로 하루가 끝나는 거다”
(전태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112-113)

- 맑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의 기여와 한계

1. 관념주의적 역사관 비판: 당대 현실의 실제적 토대 즉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구체적인 인식 강조

2.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과학' 강조: 대상을 특정한 관계와 존재방식, 운동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대상의 고유한 **특정성**을 드러내는 과학으로서 역사방법론.

3. 맑스의 사상을 물질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이라고 보는 비판

- 물질적 구조에 대한 분석만이 역사인식의 근본적 기반이 될 수 없다는 점. 정신적 요소도 자발적, 독자적일 수 있다는 시각. 역사 진행이 경제구조의 법칙적 논리에 따라 결정론적, 도식적으로 해석된다는 비판.

❖ 맑스에게, “물질주의적”이란 개념? 1) 반신비적, 반형이상학적, 반이데올로기적이란 의미, 즉 현실적, 구체적이란 함의. 2) 단순한 물질적, 자연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이란 함의 역사의 진행은 단순히 물질적/자연적 진행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 경제적, 사회적 진행.

4. 물질적 토대에 대한 비판은 다른 역사가들의 각성을 통해 이후 역사 관찰들이 한층 더 구체적이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어떤 역사관보다 크게 기여.

20세기 역사학의 흐름

1. 정치사

- 실증사학 -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역사가들에 의해 실행되는 엄격한 과학으로 역사학의 전환, 철저한 사료비판적 방법론에 입각
- 국가사 위주의 정치사 중심. 위인과 영웅 등 엘리트가 역사의 주인공
- 이야기체로 이루어진 개인 중심의 역사
-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지 일반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목적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

2. 사회(경제)사

- 역사의 일반화 추구 - 역사는 개별기술적인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의 일원이 되어야 함. 거시적 관점.
 - 정치보다는 사회사와 경제사 주류.
 - 역사학의 민주화를 반영. “아래로부터의 역사.” 민중사, 노동사 등 발전
- 예) 영국의 사회경제사, 프랑스 아날의 전체사, 여성사

3. (신)문화사

- 구조사에 반대. 미시사 추구(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
- 구조나 사회, 집단이 아니라 주 대상은 개인과 문화 - 하층민을 다루되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를 다룸. ‘실명의 역사학’
- 내러티브의 역사서술(이야기식 서술) 부활 - 역사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명 혹은 이해하는 것. 역사현실을 재구성하려 했던 사회사 방법론에 반대하여 당시 역사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생각과 행위를 이해하는 데 중점.
- 사료의 보완을 위해 가능성의 역사를 지향.

❖ 사회사의 '아래로부터의 역사'

-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대사 중..

읽을 줄 아는 노동자의 질문

일곱 대문의 테베는 누가 건설했는가?
책에서 당신들은 왕들의 이름을 볼 것이다.
왕들이 바위 덩어리를 쌓아 올렸는가?
여러 번 파괴되었던 바빌론은
누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일으켰는가?
금으로 번쩍이는 잉카의 리마에서
인부들을 어떤 집에서 살았는가?
만리장성이 완성되던 날 밤에
석공들은 어디로 갔는가?

(....)

젊은 알렉산드로스는 인도를 정복했다.
그는 혼자였는가?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패배시켰다.
그에게는 요리사조차도 달려 있지 않았던가?
스페인의 필립은 무적함대가 가라앉았을 때
울었지만, 그 혼자만이 울었던가?
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혼자만이 이겼던가?

(.....)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2000.

아날학파

- 1929년 <경제사회사 연보(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창간
- 기존 역사학계에 도전장
‘하나의 새로운 역사’, “interdisciplinary”
: 전체사와 문제사, ‘장기지속’의 구조, ‘망탈리테(심성)’
- 전체사(l'histoire totale)
 - 사회 집단 내의 인간들을 장기지속적인 구조 속에서 전체적으로 파악.

“참된 의미에서 경제사니 사회사니 하는 것은 없다. 완전히 통일된 역사가 있을 뿐이다.”

“훌륭한 역사가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손을 뻗쳐 ‘인간에 속하고, 인간에 의존하고, 인간에 소용이 닿고, 인간을 표현하고 그의 존재를 나타내며 행위 취향, 그리고 존재 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L. 페브르)

- 1세대: 1920년대~1945년 급진적이며 간헐적인 운동
- 2세대: 1940년대~1970년대 하나의 중요한 학파 형성
- 3세대: 1968년 이래 파편화, 다양한 침투

- 제1세대: 루시앵 페브르(Lucien Fevre)와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

- 지역사, 지리학, 사회경제정치사를 넘나드는 관심사.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봉직하면서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공동 연구.

- 1929년 <경제사회사 연보(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 편집인에 역사학자,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자 등 포괄.

1. 페브르 : 르네상스, 종교개혁 연구, 종교심리 및 민중심리(집단심성) 연구

- <16세기의 비신앙 문제: 라블레의 종교>: 아벨 르프랑의 라블레에 대한 연구 비판. '의식'의 문제 제기, 근대적 사고방식과 전혀 차원이 다른 의식 상태.

2. 블로크

- <왕의치유(The Royal Touch)>, 중세에서 18세기까지 지속된 왕의 유 능력에 대한 연구. 1) 손길=왕권(즉 왕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이 바로 정치적 권력) 2) 장기적 시간개념(10-19세기) 3) 종교심리학과 결합, 즉 심성사의 효시(a belief not falsifiable) 4) 비교사(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비교 연구)

- <봉건사회>: 정치 경제 제도로서 중세 말고, “봉건의 문화”, 생각 방식, 생활태도.

- 제2세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1985)

- '전체사', '문제사'

- 시간의 중첩성: 단기- 사건의 역사 / 중기: **콩종크튀르(conjoncture)** / 장기: **장기지속(longue durée)의 구조** / 초장기지속(très longue durée)

-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1949)

- 1) 사건의 역사: 펠리페 2세의 외교 정책들, 정치-군대사(밤하늘에 번쩍한 뒤 사라지는 별빛, 바다의 파도와 잔물결)
- 2) 구조의 역사: 집단의 운명과 일반적 경향, 제도와 체제, 문화의 교류, 변혁의 움직임과 저항. 지중해라는 공통적 요소가 서로 차별적인 단위에 공통적인 유사점을 부여하는 것(해류)
- 3) 장기지속의 역사: 인간과 환경 사이에 '거의 변하지 않는 역사', 산과 바다, 기후 등과 같은 변화의 속도가 느려 지각할 수 없는 것의 역사(움직이지 않는 심해)

-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 1) 물질문명: 일상 생활의 바탕, 음식과 의복, 주거, 연장, 화폐 등 물질문명
- 2) 시장경제: 교환의 세계
- 3) 자본주의: 반시장으로서 독점

- 브로델의 '장기지속'의 역사

- 1) 장기지속의 역사는 수세기의 지속을 문제로 삼는 것이므로, 종래의 단기간에 걸친 역사, '사건사'와는 결별함을 의미.
- 2) 역사의 보다 깊은 곳 '심층에서 작용하는 힘'을 탐색한다는 의미, 심층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는 지속적인 것에 주목: 새로운 공간과 시간 개념
- 3) 장기지속의 역사에는, 역사를 떠받쳐주는 일종의 하부 구조가 있음. 지리적 환경, 기후적 조건, 사회경제구조, 생물학적 여건, 일종의 생산력의 한계 또는 각종 정신적 제약 같은 것이 역사의 하부 구조인 동시에 역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기도 하는 것들이라 보는 것.
- 4) 장기지속이란 개념은 의식주와 같은 일상적인 물질문화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게 하고, 개인보다 집단에, 역사적 인물보다 무명의 대중에, 어떤 개인의 사상보다 집단의식이나 집단적 기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함.
- 5) 장기지속과 구조의 파악은 사회 발전에 관한 역사적 '모델'의 구성을 가능하게 함. ex. '역사적 자본주의'

* 브로델은 자본주의 관은 신고전파나 맑스의 자본주의관과 달라짐.

- 제3세대

- 하나의 흐름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관심과 방법들. 아날의 파편화, 다원화, 그럼에도 제3세대의 특징은 1) 반(反)브로델: 경제사로부터 좀 더 문화적 관심으로 2) 정치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 1914 - 1984), <아동의 탄생>(1960): 어린이라는 개념, 중세에 없었다가 17세기 이후에야 생긴 개념. 부르주아 가족 내부의 개념적 발전. <죽음 앞의 인간>(1977).
- 조르쥬 뒤비(Georges Duby, 1919-1996) <세 위계: 봉건제의 상상세계>(1978), 중세 세 신분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 연구.
- 자끄 르 고프(Jacques Le Goff, 1924 -2014), <연옥의 탄생>: 12세기 이후 봉건제가 자리를 잡고 세 개의 신분이 정립되면서, 하느님의 나라와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탄생. 중간계급의 등장과 사후세계에 대한 사고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사회사적 심성사"

- 아날학파의 기여와 한계

- '전체사', '장기지속과 구조', '심성사' 등 연구는, 20세기 역사 연구에서 역사인식론과 방법론 등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여는 데 큰 영향.
- 비판: 역사에서 정치적 요인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거나, 산업사회 이후의 역사와 문제에 관심이 없이 거의 18세기 이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들.

신문화사(New cultural history)

- 1970년대 이래 서양역사학계의 새로운 동향: 일상, 망탈리테(집단심성), 문화, 언어, 담론, 상징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이해와 방법으로 역사에 접근하려는 시도
- 기존 사회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 : 구조나 구조적 변화의 과정에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정작 역사의 주역인 인간은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
 - : 사회적 현실이 어떠하였는가보다는 사람들이 그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는가가 주요 관심사.
- 개별 인간의 심성과 문화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하는 공통성에서 '신문화사'라 칭.
- 심성사, 일상사, 역사인류학, 미시사, '언어로의 전환(linguistic turn)' ..

● 신문화사 역사 서술의 새로운 접근법

1. '두껍게 읽기': 인문과학의 글읽기에 전제가 되는 방법으로서,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의 “두꺼운 묘사(thick description)” 개념에 힘입은 것.
 - 두꺼운 의미의 층위를 뚫고 들어가려면 의미나 상징에 대한 해석 필요. 역사적 자료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확인하려던 종래의 과학적 역사와는 확연히 다른 가능성.
2. '다르게 읽기': 서구중심적/남성중심적인 승리자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패배자의 지평선에서 세상을 보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고 그 서술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3.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작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 빈약한 자료를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론 모색. 미시사. 무명인물의 개인적인 역사를 복원하고, 대다수 민중의 삶과 생각의 방식을 종래와 다른 시각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
4. '깨뜨리기': 기존의 역사 이해와 서술방식을 해체하고 언제나/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을 깨뜨림으로써, 더 폭넓고 다양한 이해의 틀을 만들자는 주문.

- 미시사

- 이탈리아 역사가들, 무명 인사 개인의 역사를 통해 역사를 조망하는 방식을 발전시킴. 한편 미국의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은 인류학적 역사학에서 사회사의 방법이나 인식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음.

: 로버트 단턴, <고양이대학살> (프랑스의 민담, 18세기 인쇄공),

카를로 긴즈부르크, <치즈와 구더기> (16세기 방앗간 주인)

- 미시사의 특징 1. 역사의 리얼리티를 작은 규모 또는 척도를 통해 보고자 함. 2. 연구의 초점이 개인이든 공동체 전체에 있던 실제의 이름들을 추적. 3. 소규모 공동체의 개개인들을 추적하여 그들의 행정과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밝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체의 서술로 이어짐. 4. '가능성'의 역사 지향, '가능성'이란 엄격한 실증적 의미에서의 '증거'와 대비되는 말로서 증거의 단편성이 문제될 때 증거와 증거를 잇는 최선의 가능성(실마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 함축.

- 한 개인이나 작은 사건을 통해 내밀하게 역사를 보는 방법.

❖ “두꺼운 묘사” : 여러 관찰을 해서 일반적 특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 및 상징체계에 대한 중층적인 해석 강조. <-> 얇은 묘사(thin description)

로버트 단턴의 <고양이대학살(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1984.

- 1730년대 프랑스의 파리, 생세브랑가의 한 인쇄소에서 고양이를 학살한 소동에 대한 콩타의 기록.
-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지도 모를 이야기, 프랑스혁명 이전 노동자들의 정신세계 추적.
 1.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의 관계, 당시 노동관계에 대한 고찰
 2. 유럽에 널리 퍼진 대중들의 의례와 관례. '사육제'
 3. 당시 민담, 미신, 민속 속에서 고양이가 어떤 의미나 상징을 띠는가. 1) 마법 2) 주술적 힘 3) 성(性): le chat, la chatte, le minet 라는 단어는 영어 pussy 처럼 여성의 음부 의미. 생식력과 여성의 성욕.
- '고양이대학살'은? "상징적인 모독" "대중들이 부르주아에 반격하고 단죄하는 수단의 제공"
 - 상징의 언어를 읽을 줄 알 때 그 의미가 드러남. 동물학대라는 널리 퍼진 관행과 민속학적으로 고양이가 갖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전제할 때, 1730년대 파리 인쇄공들의 '웃음'을 두껍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콩타가 남긴 '고양이학살' 소동의 전말

인쇄소에는 제롬과 레베이에라는 두 명의 견습공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좁고 더운 방에서 잤고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상급자들에게 모욕을 받고 주인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일했지만 먹을 것이라곤 찌꺼기 밖에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준 밥은 고양이조차 거절하는 것이었다. 한편 고양이는 생세브랭 가의 생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인의 부인은 고양이에 열광했고, 특히 그녀는 '그리스(회색둥이)'라는 고양이를 좋아했다.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주인들 사이에 고양이는 사랑받았다.** 25마리의 고양이를 길렀던 한 '부르주아'는 고양이의 초상화를 그리게 시켰으며 고양이들에게 구운 새고기를 먹일 정도였다. 반면 견습공들은 인쇄소지역에서 번성하여 밤새 울어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양이에 대처해야 했다.

어느날 밤 제롬과 레베이에는 이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흥내를 내는 데 탁월한 재능을 지녔던 레베이에는 지붕 위로 주인의 침실 근처까지 기어가 오싹할 정도로 고양이 울음을 울어대 주인과 그 아내는 며칠 밤에 걸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견습공들에게 고양이들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단지 그리스는 놀라게 하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제롬과 레베이에는 고양이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제일 먼저 주인 마님이 총애한 그리스를 시작으로 잔인하게 고양이들을 잡았다. 그들은 반쯤 죽은 고양이로 가득 찬 자루를 마당으로 던지고 인쇄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근위대와 고해사와 사형집행인이 완비된 모의재판을 벌였다. 그들은 고양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최후의 의식을 거행한 뒤 즉석에서 만든 교수대에 고양이들을 매달았다. 떠들썩한 웃음소리에 나와 본 여주인이 피범벅이 된 고양이가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그것이 그리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녀에게 안심시켰다. 이 순간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작업이 모두 중단된 것 때문에 격노했다. 아내는 더 심각한 종류의 불복종에 그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주인과 아내는 안으로 물러났고, 남은 노동자들은 '환희' '무질서' '웃음'으로 미칠 지경이었다.** 웃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뒤 며칠에 걸쳐 인쇄공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잠시 쉬려 할 때마다 레베이에는 최소한 스무 번에 걸쳐 그 모든 장면을 무언극으로 재연했고, 그 때마다 그들은 박장대소로 환호했다.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Natalie Zemon Davis)의 <마르탱 게르의 귀향(The Return of Martin Guerre)>, 1983

- 16세기 초 프랑스 남부 한 농촌 마을, 가짜 마르탱 게르 이야기
 - 재판관 장 드 코라스, <잊을 수 없는 판결>, 1561
 - 희곡, 소설, 오페라로 만들어짐
 - 1982년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다니엘 비뉴 감독, 제라르 드빠르디유, 나탈리 베이)
- 역사가 데이비스, 영화 제작에 고문으로 참여한 계기로 <마르탱 게르의 귀향> 집필.

: 코라스의 농민의 세계에 대한 해석을 재해석해 집단심성을 재구성하고, 당시로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코라스의 목소리에 묻힌 농민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함.

: 베르뜨랑트와 아르노에 대한 다른 해석, 둘의 공모를 주장.

- 로버트 핀레이(<마르탱 게르 다시 만들기>)과 데이비스(<절름발이에 대하여>),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

- 로버트 핀레이의 비판

-데이비스의 서술은 “사료적 사실보다 상상력”에 기반, “역사라기 보다 소설”

1. 데이비스의 해석은 코라스의 해석과 크게 다르다.

코라스에 따르면, 아르노(가짜 마르탱)는 사기꾼. 베르뜨랑드는 “여성의 본래의 유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활하고 간교한 남자에게 쉽사리 속아넘어간 어리숙한 인물.”

2. 데이비스는 직관과 자기 주장으로, 근거 없이 베르뜨랑드를 해석한다.

베르뜨랑드와 아르노의 공모? 그 유일한 근거는 “남자의 손길.” 그러나 그녀 역시 식구와 이웃들처럼 남편이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 그리고 아르노가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로 인해 속았던 것. 자백과정에서 아르노는 베르뜨랑드를 철저히 속인 데 용서를 구했고, 180명의 재판 증인 중 공모설을 이야기한 자는 없음.

3. 데이비스는 아르노가 단순히 영리한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 만들기’를 통해 진정한 마르탱이 된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근거가 없다.

: 베르뜨랑드를 아르노와 공모자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그녀를 ‘명예롭다’고 할 수 있는가? 주요 근거인 코라스의 해석과는 왜 그렇게 다른가? 서로 사랑하게 된 두 명이 프로테스탄티즘에 근거한 혼인관을 통해 자신들의 결혼을 정당화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직관과 추론은 언제나 사료의 주권과 문서의 법정 앞에 길을 비켜주게 되어 있다.”

● 데이비스의 논박

- 핀레이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한 쌍의 ‘약탈자’와 ‘희생자’의 이미지를 제시함.
- 핀레이는 사물들을 명료하고 단선적으로 파악함, 추론에 의한 지식과 가능성 있는 진실 중요.

1. 베르뜨랑드와 아르노의 공모를 보여주는 다섯 가지 증거들

1) 아르노가 마을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의 행위들. 2) 아르노와 마르탱의 신체 치수가 상당히 달랐다는 점 3) 아르노가 처음 고발당한 시점부터 베르뜨랑드가 고소한 시점까지, 베르뜨랑드가 아르노에게 대한 태도(애정관계) 4) 돌루즈에서 열린 재판에서, 베르뜨랑드가 아르노를 위해 한 증언 내용. 5) 당시 판사들의 근거. “아내가 남편에게 오랫동안 버림받아 결국 명예를 저버린 경우라면 판사는 간통죄로 기소된 아내의 죄를 사함이 정당하다. 이는 그 남편이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므로 그에게 아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15세기 후반 교회학자의 유권해석 수용)

2. 한 농촌 여성, 베르뜨랑드에 대한 다른 시선: “이중전략”

자신이 처한 여성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기민한 현실감각을 지닌 여성.

3. 아르노의 ‘자기 만들기’ : 베르뜨랑드의 진짜 남편으로서의 자기정체성.

➤ “여기 제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나의 창안물이지만, 과거의 목소리를 통해 엄격히 점검된 창안물”